“찬불가 취미가 재능기부로…”

조계종복지재단 찬불가동아리, 정식봉사단 승격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서로 각기 다른 분야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불자들이 찬불가를 배워 또 다른 봉사분야를 개척해 귀감이 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취미생활이 재능기부로 이어진 이들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직할자원봉사단 상반기 연합행사를 열고 ‘찬불가 마음치유 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찬불가 봉사단(단장 김순옥) 34명은 무대에 올라 ‘관세음의 노래’ 등을 부르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들은 60여 팀에 소속된 선배 봉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봉사단 합류를 알렸다.

찬불가봉사단은 조계종복지재단 직할봉사단 내 찬불가를 배우는 합창동아리인 ‘울림’에서 시작됐다. 울림은 도영 스님(인천 우리선원 주지)을 지도법사로 2012년 조직됐다.

도영 스님은 “봉사자들도 분명 소진되는 순간이 있다. 찬불가 합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출가 전 가톨릭계에서 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림에는 각기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 80여 명이 포함돼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 30명 이상의 동아리원들이 모여 연습한다. 2년 전부터는 피아노 반주를 맡아줄 불자 봉사자도 생겼다.

울림 측에 재능기부 봉사를 제안한 건 복지재단이었다. 재단은 봉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원 중 약 40명 규모로 봉사

2012년 취미로 시작한 찬불가
재단 내 봉사자들에 인기 끌어
40여 명 규모 봉사단으로 발전
치매어르신 정기 지원할 예정

단을 구성했다. 종단 봉사자 친목모임이 자원봉사단으로 승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미 자원봉사팀 팀장은 “그동안 울림은 난치병어린이지원 행사 등 재단 주요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해왔다. 충분히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실력이라 생각했다”며 “아픈 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 재능을 나누며 그분들 마음을 위로하면 어떨지 제안했는데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도영 스님의 지휘에 맞춰 발대식서 찬불가를 합창하는 봉사단원들 모습.

실제로 울림 봉사자 25명은 지난해 9~10월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로 2차례 시범봉사를 나갔다. 찬불가와 함께 따라하기 쉬운 동요를 부르며 손동작을 가미한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해갔다. 치매 어르신들 반응은 좋았다.

찬불가봉사단은 향후 대상자들의 근기에 따른 집단 프로그램, 개인 의뢰를 받아 소규모 조별 파견 등 ‘찾아가는 찬불가 봉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봉사단은 매달 셋째주 금요일 오전 11시 송파요양센터로 월 1회 정기봉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친목활동에서 봉사활동으로 변화를 경험한 동아리원들 반응도 뜨거웠다. 4년째 울림서 찬불가를 배운 황규학(74) 봉사자는 “불자라면 일반 노래교실보다 울림과 찬불가봉사단에서 노래하는 게 좋지 않나”라며 “앞으로도 봉사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불자들을 향한 울림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순옥 단장은 “좋아하는 찬불가를 부르면서 지금껏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재단이 이를 인정해주고 승격시켜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며 “재정 지원 없이 동아리를 꾸려오면서 울림에 대한 애정이 깊다. 앞으로는 후배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찬불가를 통해 울적함을 달래길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합 힘으로 세계 100대 대학 실현할 것“

2월 28일 동국대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

동국대가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식을 계기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2월 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 이임 및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원로의원 일면, 법타 스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성이 총장은 “동국대는 불교계 선각자가 세운 종립대이자 민족 사학”이라며 “큰 사명감을 느낀다. 세계 100대 대학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현재 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경쟁 심화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소통과 존중, 배려로 화합을 이끌겠다. 불교유산을 DNA로 가진 종립대학답게 자비와 지혜 정진을 실천 덕목으로 삼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제19대 동국대 총장(사진 오른쪽)이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으로부터 교기를 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또 윤 총장은 “학생교육과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 근본인 학생들 장래나 교수들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찾아가는 자비실천을 해가겠다”며 “여러 사람과 지혜를 모으는 통합과 연계로 시스템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번 총장 선출에 대해 “19대 총장 선거는 매우 민주적으로 열렸다”고 평하며 “신임총장은 하심으로 화합하고, 신심으로 뛰는 분으로 학교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학문과 신행활동을 병행해온 신심 깊은 불자로 사찰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동국대 건학이념을 잘 수호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 충분한 대비를 통해 앞으로 4년간 동국대 변화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임기를 원만히 마친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보광 스님의 경우 취임부터 임기 내 큰 수술을 할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임기 동안 각종 부채를 청산하고 학교 발전의 토대를 든든히 이뤄냈다”고 치하했다.

한편 윤성이 신임총장은 2000년부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주 분황사지’ 사적 지정

군위 인각사에서 출토된 공양구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또한 경주 분황사지는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조선 금속활자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을 2월 26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또한 한국 청자 제작의 시원(始原)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국보 승격예고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지난 2008년 인각사 1호 건물지 동쪽 유구서 발견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18점의 일괄 출토품 중 ‘금속공예품’은 총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 향합, 정병, 청동북 등으로 구성됐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성이 뛰어나고 섬세한 기법이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돋보인다. 특히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은 그동안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도상적으로 희귀하다.

함께 나온 ‘청자’ 7점은 모두 당나라 월주(越州)에서 생산된 중국 도자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한꺼번에 발견됐다. 청자는 8세기 말~10세기 전반 사이에 조성됐으며, 국내 출토 중국 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신성민 기자

“신도조직화 통한 역량 강화에 역주”

중앙신도회 2월 26일 대의원 총회서 신년계획 밝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도가 희망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신도역량 강화 3개년 사업을 시작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결의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어느덧 26대 집행부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는 해가 됐다. 올 한해 더 많은 지역에 행복바라미의 울림이 퍼져나가고 특히 직능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각 지역내 불자 공동체 근간이 구축, 신도조직 역량을 이끌어 가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신도회는 △신도역량강화 △종단신도조직화 △사회공동선 구현 △연대사업 △안정적 기관운영을 세부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와 사찰신도회, 신도단체, 지역직장직능단체가 신도조직으로서 함께 유기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중앙신도회는 ‘세상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중앙신도회’란 모토에 걸 맞게 특화사업을 통해 불교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서 불교로 ‘녹색’ 확산”

불교환경연대 2019년 사업계획…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는 2월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장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3대 핵심사업 및 새 임원진을 발표했다. 이들은 녹색불교 만들기, 숲교육, 조직화를 핵심사업으로 “녹색사찰 프로젝트 등 사업을 체계화하고 운영 재정을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신임 상임대표 법만 스님(참당암 선원장 · 사진), 공동대표 혜경 · 능인 · 효진 스님이 선출됐다.

불교환경연대는 10개 사찰 또는 단체와 녹색불교 협약체결을 목표로 환경법회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안내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daehaeng.org
이메일 ds7788@hanmaum.org
전화 031) 470-3276, 3277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 제2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 선정 분야
대상 1명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2 묘공학술장학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3 제3회 계절발표회
• 시간 | 2019.03.16.(토) 13:30 ~ 17:3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논 제	발 표	논 평
대행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황금연(경희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서재영(동국대)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혜원스님(동국대),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4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투고 시기 | 연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한마음연구》 게재 확정시)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